

우군예방 진료시스템의 적용 및 Repeat Breeder 대책

우군집단진료체계(예방진료시스템)의 적용

황 우 석*

1. 서론

현재 국내 대동물 개업수의사의 동물병원 운영 형태는 1인 1병원체제가 대부분이며 예방진료방식보다는 축주의 진료요청에 의한 환축치료가 일반화된 실정이다. 이와같은 1인체계 및 환축치료 위주의 진료로써는 젖소의 경우 목장 경영수지향상의 필수 전제요건인 ① 번식효율의 제고, ② 유질의 향상, ③ 경제수명의 연장 등의 문제에 현재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어둡다 하겠다. 더구나 U.R. 협상타결이 임박해 올에 따르는 국제경쟁시대의 돌입,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가족노동력 의존경영, 유대계산방식의 변화 등에 수의사의 능동적 대처가 부족함에 의한 축주와의 갈등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진료체계로서는 병원경영상의 어려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적절한 예방 및 조기처치에 실패하여 고질화되는 번식장애(특히 저수태우 등)나 유방염 등의 문제들은 자연히 진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수의사에 대한 진료의뢰 기회와 자가치료의 확대에 따른 호르몬제, 항생제 등의 남용으로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1인체계의 동물병원 운영은 고가 진료장비의 구입, 최신정보습득에의 접근, 응급환축 등에 의한 수의사 자신의 가정 및 문화생활에의 희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절실한 임상현장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법으로는 진료방식은 예방관리로, 병원운영체계는 4-5명의 공동시스템으로 전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예방진료의 적용 및 문제점

1) 예방진료 사항

예방진료는 축주와 수의사간에 사전 합의계약된 정기출장진료(월 2-4회)에 의해 실시하며 응급환축 및 수술축 등에 대해서는 비정기진료로 계산도록 한다.

이때 정기출장진료에는 분만우군에 후산정체처리 및 자궁세척(분만 후 15-30일 종) 분만 60일 경과 우군의 무발정진료, 생식기장해우 처치, 저수태우에 대한 처치 및 향후 처리지침 시달, 임신감정, 건유예상우에 대한 태아생존상태점검(미이라 변성, 태아침지 대상우색출 목적), 인공수정시의 정액선발지침, 착유기 및 냉각기의 운용상태청취, 유방염 대책, 체세포수의 추이관찰, 도태예정우의 선발, 사료의 질과 공급량의 점검, 방목현장파악, 발굽질환을 비롯한 축주의 상담질병처리 등의 영역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2) 문제점

이미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합동동물병원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후 발전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는 시행결과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목장의 사육규모 및 개별설정에 따른 예방진료간격, 진료수가의 설정, 예방진료의 범위, 담당수의사 등이 축주와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본제도의 운용결과 노출된 큰 문제점은 합동진료시스템하에서 축주와 선호하는 수의사가 극명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하게 표출되는 바 필자의 견해로는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을 경우 예방진료 및 합동병원운영의 장래가 불투명 할 것 같다.

따라서 한병원의 진료팀을 이루는 수의사간의 진료의 질적 상향평준화가 필수요건이 될 것이며 축주를 대하는 대인관계술에도 정진 해야겠다. 동시에 현재 임상수의사들의 비유영양학, 사료영양학, 착유기 등에 대한 공학적지식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합동병원별, 지역별과 같은 스터디 모임 등을 조직하여 진료상 발생된 문제점, 의문, 혁신진료정보 및 학문적변화 등에 대한 학자 등과의 토론,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3. 예방진료의 기대효과

예방진료 및 합동병원운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수의사 및 축주 쌍방에 유익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확대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생각할 수 있겠다.

1) 수의사 측면

일정한 안정적업무가 확보됨으로서 진료수가를 인하하여도 경제적 수익은 증대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축주 자가치료가 감소함으로써 약품의 남용 및 오용을 억제시켜 수의사진료에 대한 치료효과가 상승되며 적절한 진료기구의 확보와 관련정보자료 수집의 신속화로 진료술이 진보되어 축주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2) 축주측면

① 진료비의 절감

예방진료가 정착되어 일정기간 이상 시행되면 질병의 예방관리가 이루어져 건전한 우군유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진료비의 절감효과가 실현된다.

② 우군능력제고에 대한 생산성 향상

우군의 개체기록에 의해 균친번식을 피하며 사료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고 번식간격을 단축시킴에 의해 유량증대를 이루하고 유방염 예방관리로 유질을 향상시키며 적절한 예방접종의 시술로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는 등 목장경영상의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4. 저수태우군에 대한 대책

저수태우(repeat breeder)란 뚜렷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면서 3회 이상의 수정에 의해서는 수태되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현재까지 주로 이용한 저수태우 대책은 ① 발정주기 변경, ② 수정전후의 자궁 세척 또는 자궁내 약액주입, ③ 자연교배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응용하였으나 이와 같은 처치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저수태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치를 권고하고 싶다.

1) 황체기에 PGF₂α 투여

2) 55시간 후 GnRH 투여

3) 24시간 후 정시수정

4) 24시간 후 자궁내 항생물질의 주입.